

5.4신문학의 자아와 감정

－ 郁達夫 「沈淪」의 主情적 서사전략을 중심으로*

김 경 석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중국현대문학에 근대적 의미의 '감정'이 문학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서막에 대한 고찰이며, 위다푸의 「침륜」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침륜」의 주정적 인물형상은 5.4시기 지식인들의 화두였던 '인간의 발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문사조는 중국문단에 개성해방과 자아의 발견이라는 과제를 남겨주었는데, 이에 대한 작가들의 창작실천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그로부터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을 조명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내면세계 그 자체에 천착함으로써 자아의 존재와 보편적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당시 작가들이 전자에 창작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위다푸는 사회적 층위의 현상들보다는 개체로서 개인의 심연에 내재된 것들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위다푸가 작품에서 묘사하는 자아는 퇴행적인 자아가 아닌 근대국가와 개인의 함수관계를 표상화하는 서사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郁達夫가 사회적 반향, 즉 독자층의 사회적 윤리적 규범보다는 감정의 표현에 천착했던 이유는 바로 근대적 개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물론 그의 자전소설이 동시대의 문제소설이나 향토소설과 비교해 볼 때, 계몽적 개혁의지와 저항정신을 상실하고 타성적이고 퇴행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비평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郁達夫는 중국현대소설의 형성기에 주정적 서사전략을 통해 자아와 감정을 문예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위다푸, 침륜, 자전소설, 자아, 감정, 주정적 서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11).

1. 들어가며

創造社¹⁾ 작가들의 자전소설은 자아의식의 표현을 창작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들의 소설은 주로 신변잡기를 제재로 삼았고 자서전적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소설을 자전소설, 또는 자아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의 작품이 자아의 체험을 묘사하고 감정²⁾을 억압하거나 충돌하는 외부의 현실에 대한 저항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고민의 근원에 대한 탐색을 묘사하는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위다푸(郁達夫)는 자아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아는 곧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곧 자아이다. 개성이 강렬한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자아확장(Erweiterung des Ichs)의 신념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는가?³⁾

본고는 위다푸가 작품 속에서 설정한 ‘감정’을 중심으로 한 ‘주정(主情)’적 서사전략에 대한 탐색이다. 동아시아 근대국가의 헤게모니적 정치형식인 민족과 국가담론에 대한 문학적 대응양상으로서 위다푸의 주정적 서사전략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 1) 창조사: 1921년 7월 일본에서 유학중인 郭沫若, 郁達夫, 成仿吾, 張資平, 田漢, 鄭伯奇 등을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이들은 ‘예술이란 권선징악이나 도덕적 효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고, 예술이란 절대적이고 일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爲藝術而藝術)’을 표방하였다. 상하이에서 『創造叢書』, 『創造週報』를 발행하였다.
 - 2) 본고에서 운용하는 ‘감정’은 “사회 이전 문화 이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문화 의미들과 사회관계들 바로 그것이다”라는 예바 일루즈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예바 일루즈 저,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0) 곧 ‘감정’은 외부에 대한 天然적인 반응이 아닌, 자아로 정형화되어가는 근대적 의미체로 본다.
 - 3) 「自我狂者須의兒納」: 自我就是一切, 一切都是自我, 個性強烈的我們現代的青年, 那一個沒有這種自我擴張 Erweiterung des Ichs 的信念? 『郁達夫文集』제5권; 본 문장은 원래 1923년 6월 『創造週報』제6호에 「Max Stirner의生涯及其哲學」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II. 근대중국의 불안전성과 감정

중국문학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의식은 54시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중국인들-동아시아인-에게 있어서 ‘개인’, ‘자아’, ‘감정’을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에 불과하다는 의미하기도 한다.

아편전쟁의 패배에서 비롯된 양무운동(洋務運動) 이후, 서구과학기술의 수용과 더불어 인문분야에서 서구문예사조의 수용 역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변화의 화두는 ‘계몽’이었다. 19세기 말 이후 서구에서 유입된 문학 작품과 문예사조는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인간과 감정 및 자아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오랜 중국역사 속에서 감정과 자아의 실체인 ‘개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신민의식(臣民意識)과 같은 ‘봉건적 특수성’ 속에서만 이해되고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의에 대한 경험부족, 생산양식의 낙후, 이로부터 비롯된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취약성 등은 근대적 감정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과거 관료 문인들에 의해 제기된 개인주의⁴⁾는 자아의식에 근거한 근대적 개인주의와는 다른 것이며 후스(胡適)가 「文學改良芻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병도 없이 신음(無病呻吟)’하는 부정적인 자아의식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비판적 시각에서 ‘고백’이라는 형식의 글쓰기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국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는 표현해야 할 ‘내면’ 또는 ‘자기’가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형식에 의해 가능해졌고, 그것을 언문일치라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살펴보려 했다. 같은 말을 고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고백이라는 형식 또는 고백이라는 제도가 고백해야 할 내면 또는 ‘진정한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아니라 이 고백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다. 감추어야 할 것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고백한다는 의무가 감추어야 할 것을 또는 ‘내면’

4) 明代 童心說을 주장했던 李贄와 性靈說을 주장했던 三袁(袁宗道 袁宏道 遠中道)를 중심으로 하는 公安派를 들 수 있다.

을 만들어내는 것이다.⁵⁾

자전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沈淪(침륜)」⁶⁾에서는 유교적 전통과 국가주의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근대적 개인의 감정과 자아가 묘사되고 있다. 작품에서 나약하고 감상적인 주인공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주변의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독의 벽을 쌓아간다. 이후 혼자만의 생활에서 그는 문학과 자연을 벗하게 된다.

郁達夫의 고독한 자아는 흔히 반전통을 담보로 하는데 이 경우 외면적으로 자아의 반전통적 특성이 주제, 모티프, 대사 등을 통해 부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와 격리된 지식인이라는 구도의 설정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존재의미가 결정되던 전통적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일정한 이탈과 변형을 보여주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⁷⁾

위다푸의 자전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성과 자살이라는 심리활동의 극단을 통해 시대상황과의 불협화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소설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감정과 자아를 다루고 있다. 「沈淪」은 在日 중국유학생의 우울한 성격과 변태적인 성심리, 약소국의 유학생이 겪는 민족적인 모멸감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그’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형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가지만 형과 의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다. 그는 정의감이 강해 사회현실에 적응하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다. 그는 부패한 사회모순이나 민족차별에 대해 분노할 줄 알지만, 이를 극복해나갈 실천의지는 없다. 그는 늘 과도한 감상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의

5)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6년, p.104.
6) 1921년 5월 발표한 「沈淪」은 郁達夫의 대표작으로서 당시 문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은 ‘타락’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침륜’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의미)물속에 가라앉음’ 또는 ‘재산이나 권세 따위가 줄어들어 보잘것없이 됨’ 등이다. 「침륜」의 내용으로 볼 때, 제목을 사전적 의미나 ‘타락’으로 번역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를 대체할 한국어가 마땅치 않기에 본 논문에서는 원제목대로 ‘沈淪’으로 표기한다.
7) 정진배, 『중국현대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p.164.

주위에 있는 유학생들은 공부를 게을리 해도 귀국해서 출세하지만, 자신은 열심히 공부해도 전망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일본에서 중국유학생으로 받는 모멸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이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갈망으로 늘 고민한다. 이러한 현실은 그를 갈수록 심한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유일한 해결방법은 관음증과 자위행위 밖에는 없다. 그는 매달 말 일이 가까워지면 다음 달부터는 자위행위를 끊고 새 생활을 시작할 각오를 하지만, 이조차도 실천할 의지도 부족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해도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 사랑을 얻기도 어렵다. 그는 이러한 성적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⁸⁾

「沈淪」에서 주정적 자아는 서사적 자아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소설과는 다르게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서정 소설의 화자역할을 하고 있다. 서정소설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이미지의 언어로써 융합하며, 인간의 지각과 인식행위를 직접 표현하려는 특별한 양식이다. 「沈淪」에서 화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이 때 화자는 객관 대상에 주관적인 감정을 투사하여 화자 자신의 자아를 반영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객관 현실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 의식의 표출이 된다.⁹⁾

그러므로 위다푸는 반식민지 중국의 현실이나 제국 일본의 사회상에 대한 묘사는 빗겨가면서 이와 같은 외부세계를 철저히 주인공 ‘그’의 심리의 심연 속으로 내면화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므로 「沈淪」에서 묘사된 성의식과 자살을 통한 자아의 표출은 주인공이 사회현실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감정이 굴절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상에 도취된 자아와 현실 속 실체로서 자신이 나타내는 괴리는 분열적 심리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아폐하’는, 이상화된 대타자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투사된 형상에 자만하거나 아니면 산산조각으로 폭발해 파멸한다. 이상화

8) 김경석, 『중국현대문학사』, 학고방, 2016, pp.73~74.

9) 박재범, 「中國 現代抒情小説에 관한 一考」, 『중국현대소설의 전개』, 보고서, 2002, p.114.

된 대타자는 숭고하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으며, (나에게) 걸맞은 훌륭한 인물이고, 내가 그에 비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우리의 결합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¹⁰⁾

작품은 시작부터 “그는 요즈음 가련할 만큼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로 시작할 만큼 ‘그’에게 있어 제국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는 건디기 힘든 공간이다. 그는 법관이었던 형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교정을 산책하면서 위즈워드의 낭만주의 시를 읊거나 시골길을 산책하며 목가적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양초를 썬 것처럼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화창한 날이면 즐겨 읽는 문학서적을 들고 인적이 드문 산이나 호수로 가서 고독에 심취했다. 천지가 온통 적막한 시간, 하늘과 물이 서로를 비추는 곳에서 그는 풀과 나무, 벌레와 고기를 보고 하얀 구름과 푸른 하늘을 보면서 자신이 높은 곳에 우뚝 선 고고한 현인이고 세상에 홀로 초연한 은자라고 생각했다.¹¹⁾

그는 정의감이 강해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의 현실을 잊지 못하기에 일본인들에 대해 비분강개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적개심이 가라앉고 나면 일본인들에게서 동점심을 얻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를 나타낸다. 유학생들이 지속될수록 성적인 고민과 몽상 속에서 자기비하에 빠져들며 날이 갈수록 초취해져가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는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가고 기억력도 날로 감퇴 되어간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점점 남남의 얼굴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며, 특히 부녀자를 볼 때면 더욱 건디기 힘든 어려움을 느꼈다. 그는 학교의 교과서는 점점 싫어졌으나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이나 중국의 유명한 몇몇 誨淫소설 등은 읽고 또 읽어서 거의 다 외우고 있었다.¹²⁾

10) 쥘리아 크리스테바 저, 김인환 역, 『사랑의 역사』, 민음사, 2008, pp.16~17.

11) 본 논문에 인용된 「沈淪」은 『郁達夫文集』(花城出版社, 1982) 제1권에 수록된 작품을 번역한 것이다.

12) 「沈淪」

그는 밤마다 여성의 육체를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다음 달부터는 금욕적인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지만 이를 실천할 의지도 부족하다. 또한 그는 일본학생들 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의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연애(개체적 자유)조차도 국가나 민족(집체적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탐닉하는 자위행위는 성욕해소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적 권위에서 비롯된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¹³⁾ 은밀하게 짝사랑하던 하숙집 딸이 이사를 가게 되자 그의 우울증은 더욱 깊어지고 자신의 유학비용을 대주던 형에게 의절의 편지를 보낸다. 그가 우연히 가게 된 바닷가의 기녀가 있는 술집에서 그는 기녀에게 자신이 중국인임을 밝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자신의 소심함과 비하감에 더욱 괴로워한다.

원래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멸시했다. 우리가 개폐지를 멸시하듯이, 일본인들은 다들 중국인을 ‘지나인’이라고 불렀다. ‘지나인’이라는 세 글자는 ‘도둑놈’이라는 욕보다 더 듣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 이 꽃 같은 여인 앞에서 ‘나는 중국인이야’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⁴⁾

그는 술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기녀에게 팁까지 주고, 팁을 거절하는 기녀를 보면서 그는 팁이 적어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고민한다. 술집을 나온 그는 주머니 속에는 전차를 탈 돈도 없음을 깨닫고 더 깊은 자괴감에 괴로워한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감정의 표출을 억압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사항들을 지켜나갈 의지를 상실하고 만다. 삶의 동기와 의욕을 상실한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과 자괴감 같은 증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잉여자(剩餘者)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정상인에 비해서 정신적 신체적 활동은 매우 무기력한 지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며, 자존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괴감에 빠져든다. 자신

13) 김경석, 「자전소설의 자아와 서사」, 『중국인문과학』제35집, 2006, p.234.

14) 「沈淪」

을 버림받거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우울증과 죄책감은 자기비하적 망상을 심화시킨다.¹⁵⁾

그는 걸으면서 처량하고 슬픈 말들을 죄다 쏟아냈다. 한동안 걷다가 다시 서쪽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주위의 경치와 사물들이 모두 흐릿해졌다. 눈물을 한번 훔치고는 멈추어 서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¹⁶⁾

「沈淪」에 대한 반응은 매우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작품이 발표되자 한편으로는 청년독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지식인들과 독자층으로부터 퇴폐적이고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沈淪」의 주인공 형상을 놓고 문학연구회¹⁷⁾의 작가들은 고전문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명신음’의 병폐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문학연구회의 지식인들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沈淪」에 대해 문학연구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저우쥘런(周作人)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기실 부도덕한 문학은 관습에 저항하는 문학이며, 새로운 도덕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센이나 톨스토이의 저작들은 각종 사회적인 명분과 규율을 공격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며, 더욱 합리적인 생활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본의는 원래 도덕적인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관습에서 본다면 이는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는 모든 혁명사상의 공통된 운명으로 예수, 코페르니쿠스, 다윈, 니체, 크로포트킨이 모두 이와 같았다.

15) 김경석, 「創造社 自傳小説에 대한 몇 가지 再論」, 『중국어문학』 제60집, 2012, p.245.

16) 「沈淪」

17) 1921년 1월 북경에서 창립된 文學研究會는 沈雁冰, 葉紹鈞, 鄭振鐸, 王統照, 周作人 등 12인이 발기인으로 설립하였다. 그들은 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하는 문인 소설잡지 『소설월보(小說月報)』를 자신들의 문학진지로 삼았다. 문학연구회의 성원들은 신문학 창작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의 재조명 및 외국문학의 번역 및 소개에도 공헌하였다. 당시 영향력 있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성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사단으로 발전하였다. 문학연구회 성원들은 ‘인생을 위한 예술(爲人生而藝術)’을 표방하였다.

성 문제에 관해서도 휘트먼이나 카펜터의 사상이 당시에는 부도덕하다고 배척되었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순결하고 도덕적인 사상이었다.¹⁸⁾

5.4시기 중국사회의 제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소설을 창작하던 다수의 문학연구회 작가들은 위다푸의 「沈淪」에서 그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고전문학 속의 ‘무병신음’하는 재자가인(才子佳人)의 暗影을 읽어냈을 것이다.

비록 그 才子들은 몰락하여 뜻을 얻지 못하고 슬픔을 견뎌야 하는 ‘쓸모없는 자’의 형태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쓸모없는 자’에 대해 쓰기만 하면 바로 현실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쓸모없는 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실주의자는 ‘쓸모없는 자’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오블로모프와 루틴의 경우처럼 분석과 비평, 심지어 편달의 태도를 취하며, 낭만주의자가 쓰는 ‘쓸모없는 자’는 작가가 내심 감상하고 찬미하는 인간이다. 郁達夫의 ‘잉여자’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후자에 속한다.¹⁹⁾

그러나 문제소설에 천착했던 ‘인생파’작가들이 「沈淪」에서 묘사되는 ‘연애의 비극’에 대해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5.4시기 입센주의가 유입된 이후 자유연애나 자주적 혼인 등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분명 당시 작가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인생파 작가들이 주목한 남녀문제는 봉건질서체제 속에서 자주적 혼인을 쟁취하기 위해 가부장제와 맞서야 했던 여성의 분투가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 예술파의 위다푸 역시 작품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남녀문제에 할애하고 있지만 주인공 ‘그’가 직면한 장애물은 봉건적 혼인문화

18) 周作人, 「沈淪」, 『周作人文選』제1권, 廣州出版社, 1996, p.151.

19) 嚴家炎: 儘管這個‘才子’是以淪落不得志和抑鬱傷感的‘多余的人’的形態表現出來的。我們不應該有這種誤解, 以為一寫‘多余的人’就是現實主義。‘多余的人’其實也有兩種: 現實主義者創作‘多余的人’是採取解剖, 批評甚至鞭打的態度的, 如奧勃洛莫夫和羅亭; 浪漫主義者筆下的‘多余的人’, 則往往是作者在骨子里所欣賞, 所讚美的。郁達夫筆下的‘零余者’形象, 基本上屬於後一種。『中國現代小說流派史』, 人民文學出版社, 1995년, p84.

나 가부장제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이라는 제국의 공간에서 연애로부터의 소외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생과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없는 짝사랑과 이를 해소할 유일한 출구인 관음증과 자위행위에 대한 묘사는 「沈淪」의 주정적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위다푸 역시 사랑과 반식민지 중국의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면의 심리에 대한 주정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조국의 현실이라는 외부적 요인은 소거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애정이다. 만약 내 괴로움을 이해하는 미인이 있다면 설령 그녀가 나에게 죽으라고 요구해도 나는 따를 것이다. 만약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녀가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그녀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성의 애정일 뿐이다.²⁰⁾

위다푸는 ‘잉여자’라는 형상을 반봉건반식민지 중국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沈淪」의 주인공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개인의 삶에 대한 원망보다는, 조국이 부강해지기를 희망하는 말을 내뱉는다.

조국이며, 조국이며! 나의 죽음은 너로 인함이다. 그대여, 어서 부강해 지거라! 그대에게는 고통받는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다.²¹⁾

그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주인공의 외침에서 「狂人日記」의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광인의 외침이 갖는 계몽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루쉰(魯迅)이 의도한 광인의 외침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沈淪」 주인공의 외침은 ‘개체’의 욕망이 출로를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집체’에 대한 원망 이상의 의미는 갖기 힘들다. 그것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수

20) 「沈淪」

21) 「沈淪」

동적인 미성숙한 자아가 일상세계와 대결을 벌일 때 쉽게 내뱉는 원망의 목소리이자 불평의 증언거림”²²⁾에 지나지 않는다. 위다푸 자신도 ‘잉여자’의 고뇌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서사는 ‘개체’와 ‘집체’의 연관성을 외면하거나 최소화하고 있기에 당시 다른 작가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계몽주의나 애국주의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없다.²³⁾

주인공의 타락(沈淪)은 자신의 성격과 운명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게 패전국 입장에 있는 중국의 굴욕적인 처지와도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설의 중요한 줄거리와 편폭은 결코 애국주의를 선전하는데 할애된 것이 아니며, 주제 또한 단순한 애국주의로 귀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²⁴⁾

「沈淪」에서 묘사된 주인공의 죽음 이면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이분법적 세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대해 郁達夫는 ‘자아’를 표현하는 전략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개인의 자살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바와 같이 “누구든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에 대해 서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명에 대해 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근대적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고유의 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⁵⁾

근대성을 선형한 일본자본주의와 낙후된 반식민지 중국에 대한 실망은 위다푸로 하여금 퇴행적 환상 속에 머물게 하였다. 이와 같은 자전소설의 서사전략에 대해 당시 문단은 말초적이고 퇴폐적이거나, 고전문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담(玄談)적 지식인의 서사에 불과하다는 비평을 쏟아내기

22) 이종민, 「郁達夫의 소설세계: 날개 꺾인 영혼의 우울한 상상」, 『동아문화』 제35집, 1997, p.37.

23) 김경석, 「創造社 自傳小說에 대한 몇 가지 再論」, 『중국어문학』 제60집, 2012, p.246.

24) 孔慶東: “主人公의 沈淪, 有他自身的性格和遭遇的原因, 但不容不認, 也與中國在日本面前的戰敗國的屈辱身份有關. 小說的主要故事和篇幅不是在宣傳愛國主義, 主題也不是一个簡單的愛國主義痛恨的”, 『1921 誰主沉浮』, 山東教育出版社, 1998년, p.68.

25) 김경석, 「創造社 自傳小說에 대한 몇 가지 再論」, 『중국어문학』 제60집, 2012, p.247.

도 하였다. 같은 시기 남녀의 애정문제 다루었던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침륜」에 대해 날선 비평을 쏟아내면서도 위다푸의 애정문제에 대한 주관주의적 서사전략이 독자들에게 근대적 감정과 자아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가 묘사하는 애정문제, 즉 ‘사랑’이란 근대적 주체, 즉 자아를 규명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쥘리아 크리스테바는 다음과 같이 위다푸를 변호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이란 ‘내’가 나에게 비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간이자 공간이다. 나는 개체가 아니라 군주이다. 분할될 수 있고, 길을 잃어 소멸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융합을 통해 초인적인 정신 현상의 무한한 공간 같은 것이 된다. 편집증 환자라고? 사랑 속에서 나는 주관성의 절정에서 있게 된다.²⁶⁾

작품에서 위다푸는 시종일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어디에도 사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플롯은 없고, 다만 상상으로 진행되다가 실연으로 끝나는 서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상상하는 연애조차도 서로의 애정을 주고받는 행위들, 예를 들면 연인과 함께 연극을 관람한다거나 여행을 하는 상상, 양가 집안으로부터 결혼허락을 받는 상상 등이 아닌, 여자의 육체를 탐하는 상상일 뿐이다. 이것은 당시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었던 ‘문제소설’작가들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풍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다푸가 묘사하는 애정문제는 사회적 확장성보다는 ‘자아’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데서 차이를 나타낸다. 주인공 ‘그’가 ‘성’에 탐닉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 역시 제국 일본이라는 현실공간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소설이 취하고 있는 제재 역시 주정적 서사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고전소설 가운데 성과 자살은 작품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을 극대화시키거나 통속성을 지향하는 장치로서 운용되었지만, 위다푸의 「침륜」 가운데서는 작품을 일관하는 중요한 모

26) 쥘리아 크리스테바 저, 김인환 역, 『사랑의 역사』, 민음사, 2008, pp.14~15.

티프로서 성과 자살 그 자체가 담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문학연구회를 중심으로 창작되던 계몽주의적 작품들이 외부세계의 객관적 묘사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위다푸는 주인공 ‘그’를 통해 자신과 외부세계의 갈등을 내면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자아는 작품 속에서 주정(主情)적 화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주정적 서사는 기존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미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Ⅲ. 맺는 글

「沈淪」의 주정적 인물형상은 5.4시기 지식인들의 화두였던 ‘인간의 발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인문사조는 중국문단에 개성해방과 자아의 발견을 어떻게 효과적인 창작으로 실천할 것인지 과제를 남겨주었는데, 이에 대한 작가들의 창작실천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그로부터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을 조명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내면세계 그 자체에 천착함으로써 자아의 실체와 그 보편적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당시 작가들이 전자에 창작의 초점을 맞추는, 공리(公利)적 창작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다푸는 사회적 층위의 표피적 현상들보다는 개체로서 개인의 심연에 내재된 것들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5.4시기에 위다푸를 비롯한 창조사의 작가들 역시 ‘인간의 발견과 재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인간의 발견과 재인식’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학연구회 작가들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연구회 작가들은 창조사가 주장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문예의 무목적성에 대해 고전문학에서 이미 볼 수 있었던 주관적 정서의 과잉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과는 달리, 창조사의 작가들도 문학의 공리적 기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위다푸의 주정적 서사전략은 주관주의가 사회변혁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 성찰을 통한 자아(개체)의 탐구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집체)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그의 소설은 당시 문단의 주류사조 작품들과는 다른, 여전히 정의하기 힘든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위다푸의 소설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저속한 호기심과 고상한 이념의 기묘한 조합, 전통적인 사고법과 서양 취미의 억지스런 혼합, 작품 사상의 비연속성 등 내재적인 모순들이 그의 작품을 해독하기 힘들게 한다. …… 70년쯤 지났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확실해져야 할 작품의 윤곽이 아직도 떠오르지 않는다. 한편 이 ‘모호함’이야말로 문학의 근대화가 곧 서양화라고 강요당한 근대 문학의 운명을 암시한다. 또한 그 ‘기형’은 서양 문학을 수용하는 괴로운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²⁷⁾

전통과 반전통이 충돌하던 시기, 위다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작가의 자아가 투영된 ‘自傳’속에 나타난 문자의 나열은 자아의 실체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으며 그가 묘사하는 자아에 대한 비평은 분명 시대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묘사하는 자아는 퇴행적인 자아가 아닌 근대국가와 개인의 함수관계를 표상화하는 서사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위다푸가 사회적 반향, 즉 독자층의 사회적 윤리적 규범보다는 감정의 표현에 천착했던 이유는 바로 근대적 개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물론 그의 자전소설이 동시대의 문제소설이나 향토소설과 비교해 볼 때, 계몽적 개혁의지와 저항정신을 상실하고 타성적이고 퇴행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비평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다푸는 중국 현대소설의 형성기에 주정적 서사전략을 통해 자아와 감정을 문예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7) 장징 저, 임수빈 역,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pp.276-277.

■ 참고문헌

- 윌리엄 레디 저, 김학이 역, 『감정의 항해』, 문학과지성사, 2016.
- 김경석, 『중국현대문학사』, 학고방, 2016.
- 에바 일루즈 저,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돌베개, 2010.
- 제롬 케이건 저, 노승영 역, 『정서란 무엇인가』, 아카넷, 2009.
- 줄리아 크리스테바 저, 김인환 역, 『사랑의 역사』, 민음사, 2008.
- 장징 저, 임수빈 역,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 정진배, 『중국현대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2001.
-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6.
- 張法 저, 유중하 등 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 郁達夫, 『郁達夫文集』 1卷 5卷 7卷, 花城出版社, 1982.
- 孔慶東, 『1921 誰主沉浮』, 山東教育出版社, 1998.
- 譚楚良, 『中國現代派文學史論』, 學林出版社, 1997.
- 周作人, 『周作人文選』 1卷, 廣州出版社, 1996.
- 嚴家炎, 『中國現代小說流派史』, 人民文學出版社, 1995.
- 김경석, 「創造社 自傳小說에 대한 몇 가지 再論」, 『중국어문학』 제60집, 2012.
- 김경석, 「자전소설의 자아와 서사」, 『중국인문과학』 제35집, 2006.
- 박자영, 「국가의 경계선, 욕망의 임계점—郁達夫초기소설에서 민족/국가와 리비도의 문제」, 『중국소설논총』 제20집, 2004.
- 박재범, 「中國 現代抒情小說에 관한 一考」, 『중국현대소설의 전개』, 보고서, 2002.
- 이종민, 「郁達夫의 소설세계: 날개꺾인 영혼의 우울한 망상」, 『동아문화』 제35집, 1997.

❖ ABSTRACT

The Ego and Emotion of Chinese Modern Literature

Kim, Kyungseog

This is a disquisition of the emotional literature that first appeared in Chinese modern literary works. The <Corruption> of Yidafu is the first work to represent human affect as a theory of creation. This work is also considered an example of an emotional narrative, and an autobiographical novel. The shape of the lyrical figure of <Corruption> is derived from the ideology of liberation that advocates the ego - Yudafu deals with 'sexuality' as a narrative strategy that effectively portrays the self. Upon review, this was work not to be considered a depiction of a degenerate human being, but rather an attempt to find the self effectively by making the 'sexuality' consciousness in the inner human being a type of discourse in the work. This work is evaluated as an excellent work expressing modern personalities and emotions effectively and thoughtfully by the author.

Key Words : Yudafu, corruption, autobiographical novel, ego, affect, emotional narrative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